

지 부 소 식

(지부의 소식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사진을 함께 보내 주십시오.)

신 촌 지 부



사진 : 정 대판 부부

4월은 신촌지부에 경사가 겹친달 이었다.

15일 서교동 철로가에서 대흥동의 아직 단장을 끝내지 않은 이화여대 앞의 소방서 옆으로 이사한 신촌지역은 일행크리 사도를 모시고 지부승격의 지부대회를 가졌다.

13일엔 지부장 정 대판 형제가 장영희 자매를 신부로 맞는 날이었다. 선교부장님의 주례로 이루어진 이날 신촌지부의 회원들은 노총각을 면하는 지부장을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동대문 지부

지난 4월 27일 오후 2시 동대문 지부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는 문 시우 형제의 결혼식이 동대문 지부에서 있었다.

김 죽자 자매를 신부로 맞은 이날의 결혼식은 선교부장님에 의해서 주례 되었다. 39살의 노총각 문 시우 형제는 얼굴에 웃음을 그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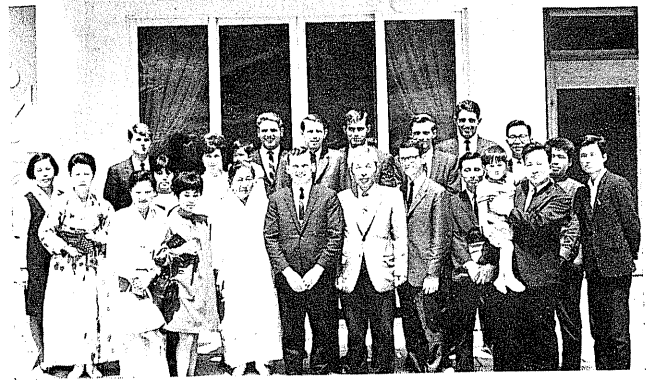
동대문지부는 지부장 만이 청각으로 남아 있다.



사진 : 문 시우 부부

녹번 지역 개척

중앙 지방부 산하에 또하나의 지역이 만들어 졌다. 응암동 5번지 21호에 자리를 정한 녹번 지역은 4월 22일 선교부장단과 함께 첫 예배를 보았다. 서부 지부에서 분리된 녹번 지역에서 수고하고있는 선교사는 닐슨, 슬로버, 피터슨, 기포드 장로들이다.



교사 훈련반 개강

중앙 지방부 주일학교 주최의 교사 훈련반이 4월 2일 선교부장님을 모신 가운데 개강 되었다.

모든 교사들의 기술을 향상시켜 알찬공과를 전하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진 이 교사훈련반은 누구나가 참석해서 배울수 있으며 강습을 필한 사람에게는 이수증을 발급 해서 점차적으로 훈련을 필한 사람은 교사로서 우선 대우를 하도록 지방부는 각 지부에 공문을 낸 바 있었다.

14주로 계획하고 있는 교사훈련반의 교재는 "복음의 가르침"이란 교사지도서이며 김 북경, 김 중균, 정 대판 형제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브론손 형제 착한 오빠 상 받다



주한 미 8군 인력조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스텐 브론손 형제는 지난 5월 1일 B. B. S. 서울시가 제정한 Big Brother & Sister (착한 언니, 오빠)상의 오빠의 칭호를 받았다.

신문회관에서 10시부터 있었던 이식전에는 그를 축하하는 많은 어린이들로 이채로웠다.

그는 서부지부의 황 근옥 자매

가 경영하는 고아원 송죽원에서 합창을 가르쳐 왔으며 교실을 지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녹음한 테이프를 미국에 가져가서 입체음향의 L. P판을 만들어 왔었다.

6월에 이한하는 그는 뉴질랜드에서 선교사 생활을 마친 형제로서 부모가 없는 고아들에게 인생을 어렵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가르쳐 왔다고 했다. 82명의 이름을 모두 암기하고 있는 그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웃음으로 메꿔야 하는 경우에도 어린아이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대답을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 곧 떠나게 되는 그는 상처를 주지 않고 헤어지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

그가 가르친 아이들과 함께 미국의 유명한 T·V프로인 아트 링크레터 쇼에도 출연한 바 있는 브론손 형제는 5월 9일 동양 T·V에도 출연 했었다.

제2회 청소년 소녀 대회

1968년도 청소년 소녀 대회를 준비중인 선교부에서는 8월 10일과 11일의 1박 2일 예정표를 만들어 놓고 작년의 성황에 못지않은 대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더욱 많은 분들께 알려



주셔서 더욱 유익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지부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된 인원에게 초청장을 발급하기로 준비하고 있는 이 대회에 많은 기대를 가져 주십시오.

토 () 막 () 소 () 식 ()

○선교부장 가족 일행은 일본 주둔 미국 군인 형제들의 대회에 초청을 받고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였다. 한국 성도들의 동향을 보고했던 선교부장은 그들에게 한국을 이해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남부 지방부 지도자 대회가 4월 5일부터 6일까지 부산 동구지부에서 있었다. 중앙 지방부에 이어 남부 지방부 단독으로 계획한 이 모임은 중앙 지방부에서 연사를 초청하는등 세심한 곳에도 준비를 한 모임으로 지도자의 훈련과 좀더 나은 교회 행정을 모색해 보는 모임이었다.

○동부 지부의 손 재만 형제와 홍 기열 자매의 결혼식이 4월 20일 오후 2시 중부 예식장에서 있었다.

○작년 9월 착공한 바 있는 선교부 사무실이 준공되어 4월 29일 입주 하였다. 선교부의 기구가 한 곳에 모여 유기적인 업무수행이 되어 지기를 바랬던 선교부의 직원들은 함께 즐거워 했다.

○선교부장 제2보조로 전주에서 전도하던 스날 장로가 임명되었다.

○이 정현 장로(청운), 이 구남 장로(동부), 페리튼 장로(뉴질랜드)가 5월 8일로 2년과 2년반의 임기를 각각 마쳤다.

○그간 준비를 서두르고 있던 선교사 농구부가 발족되어 연습을 시작하고 있다. 김광덕, 퓨, 카스, 스날, 위진스, 파커, 워즈워스, 히리, 메쥔, 루만, 파커, 닐슨등 서울지역의 선교사들로 구성된 선교사 농구팀은 5월 18일 명지대학과, 25일 건국대학과, 6월 1일 단국대학과, 6월 8일 중앙대학과의 예정표를 짜놓고 연습중이다.